연세대학교 수강신청 제도안내

1. 목적

가. 기존의 수강신청 방식이 선착순에 의해 결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특정 시점의 집중현상, 과목의 매매 등 비교육적인 행태)을 해결

나. 특정 과목 수강에 대한 욕구의 정도를 학생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본인의 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

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의 불만을 최소화

라. 수강신청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된 기초자료가 수집될 수 있어 과목의 정원 조정 및 추가 개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 가능

2. 대상

신촌(국제) 및 원주캠퍼스의 학부 재학생(단, 의·치대 본과 재학생 및 원주의대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됨)

3. 주요 내용

가. 세부 사항

1) 수강신청(마일리지선택제+타임티켓제[1])

학생 개인에게 학기별로 일정량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학생은 개별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 과목별로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가) 학생에게 부여하는 개별 마일리지의 총량은 가능한 한 큰 수치로 부여하여 과목별로 다양한 마일리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동점자 분포를 최소화함

나) 학생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은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기초로 부여하여 다양한 학과별 졸업이수학점 및 학기별 신청과목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함(학기당 수강가능학점×4가 기본 원칙임)

다) 학생은 한 과목에 최대 본인 마일리지의 1/2(다만,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 36으로 제한)까지 배분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은 수의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이 우선권을 갖는 부적절한 경우의 수를 감소시킴

라)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부여되는 마일리지의 총량은 다음과 같음

---

1) 타임티켓제는 마일리지가 동점인 경우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제도임

캠퍼스	수강신청 허용 학점	해당 대학	마일리지 총량	졸업이수학점
신촌 (국제)	18	상경대학,경영대학,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간호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및HASS계열2~4학년)	**72**	126
	19	문과대학,이과대학,공과대학,생명시스템대학,신과대학, 음악대학,자유전공,언더우드국제대학 그 외	**76**	135~166
	24	의예과,치의예과,약학대학, IT융합공학		전공 경쟁 X 교양이수의무적음
원주	18 ~ 21	정경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원주의과대학(의예,간호,치위생)	**72**	126
		인문예술대학,과학기술대학,보건과학대학	**76**	135~140
공통	24	학부-대학원연계과정,대학원과목신청자	**72 ~ 76**	(대학원과목은 마일리지X)
	기타	직전학기 성적 3.75이상 3학점 초과신청 가능자		(초과신청학점에 따른 마일리지 추가부여 X)

(1) 한 과목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최대 36이며, 두 과목 이상에 최대 마일리지인 36을 사용할 수 없음

(2)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이 적용되는 한국어연수의무자(한국어능력 4급 미만)도 영어, 원어 강의는 학점제한의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소속에 따른 수강신청 허용학점에 의해서만 마일리지의 총량을 결정하여 부여함

(3) 한 과목에 배분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1~36까지이며, 필수과목인 YONSEI RC101과목은 0의 마일리지로 기간 전에 자동신청됨

2) 신청내역배정 및 결과공개

가) 수강신청의 자료를 기초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과목별로 순위를 정렬하고 정원 범위까지의 순위자만 수강신청을 허용함

1) 과목별로 학생이 배분한 **마일리지**
2)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3) 개설학과에서 설정한 전공학과와 학생(복수)전공의 일치 여부
4) 신청과목수(학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6개 까지만 반영하며, 수강허용학점의 예외 과목은 과목수에 포함하지 않음)
5) 졸업신청여부
6) 초수강(재수강 아님) 여부
7) 총이수학점/졸업이수학점(최대값 1.00)

> * 일반편입생의 이수학점 = 인정학점 + 취득학점
> * 학사편입생/교환학생의 이수학점 = 학년별 기본 수료학점 + 취득학점

8) 직전학기이수학점/학기당수강가능학점(최대값 1.00)

나) 신청내역의 배정결과를 추가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공개하여 학생이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의 수강신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역 배정결과 조회 기간 중에는 수강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희망과목 담기 기능을 통하여 추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미리 설정할 수 있음

3) 추가수강신청(대기순번제)

정원을 초과하는 과목의 수강신청 희망자에게는 대기순번을 부여하고 정원내의 수강신청자가 취소하면 대기순번대로 수강신청이 이루어짐

가) 수강신청에서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과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됨

나) 수강신청 당시에 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마일리지 및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에 의하여 부여된 순위가 기본 대기순번으로 적용됨

다) 기존에 신청한 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하는 경우는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새롭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대기순번이 후순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과도한 수강신청은 불리하게 작용함

4) 수강변경(대기순번제)

가) 추가 수강신청의 대기순번을 초기화하여 수강신청 실패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

나) 선착순으로 대기순번을 부여하며 수강신청을 진행함

다) 대기리스트의 과목은 정원내 수강신청자의 취소 및 정원 변경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신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지 않으면 대기리스트에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함(변경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함)**

나. 기타 수강신청의 방식

구분	제도
1차 복학생 수강신청 교환학생 수강신청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생 수강신청	재학생과 동일 (마일리지선택제/대기순번제)
2 · 3차 복학생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다. 재수강

모든 기간에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나, 재수강을 희망하는 정도가 큰 경우는 수강신청 기간에 높은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4. 과목의 개설 및 정원의 운영

가. 정원의 조정

1) 마일리지선택제로 진행되는 수강신청, 신청내역배정 및 결과공개 기간에는 과목의 정원에 의하여 신청내역배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원의 조정이 불가하며, 과목의 개설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값으로 정원을 개방함 (강의실 최대 수용인원의 90%이상 권장)

2) 대기순번제로 운영되는 추가 수강신청, 수강변경 기간에는 정원의 조정이 가능하며 강의실의 수용 범위 안에서 대기순번자들의 수강신청을 허용하기 위하여 정원 확대가 있을 수 있음

나. 과목개설시 반영 사항

< 과목개설시 정원입력 방식 >

과목명	전공학과[1]	정원	교환학생가능[2]	전공자정원[3]	학년별정원[4]				MaxMileage[5]
					1	2	3	4	
				□					

1) 전공학과
   가) 해당 과목이 전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학생의 소속학과가 나열됨
   나) 이 항목은 한 과목에 같은 마일리지를 선택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과목의 개설학과와 학생(복수)전공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다) 전공자정원으로 전공자에게 일부 정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의하여 전공자의 여부가 결정됨
2) 교환학생가능
   가) 해당 과목을 교환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지를 선택
   나) 초기값은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음
   다) 학교간 호혜적 상호 존중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된 협정의 준수를 위해서는 교환학생들의 수강권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외부생의 수강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불가피하게 "불가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해당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라) 국내 타대학 교환학생은 이 설정과 무관함
   ※ 일부 학과는 교환학생가능이 아닌 교환학생정원으로 통제될 수 있으며, 교환학생가능에 O,X가 아닌 숫자값이 있는 경우는 해당 정원 내에서만 배정 또는 신청됨
3) 전공자정원
   가) 해당 과목의 전공자(복수전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정원
   나) 전공자들은 과목의 전체 정원 중 적어도 이 값 만큼 정원을 보호받을 수 있음 (마일리지를 높게 선택한 타전공 학생들로부터 해당 전공자의 수강권을 보장)
   다) 전공자(제1전공)에게만 적용할지 전공자(제1전공)와 복수전공자(제2전공)에게 모두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음
   라) 정원 내의 전공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마일리지 및 이후의 우선순위(신청과목수→졸업신청여부→초수강여부→[총이수학점/졸업이수학점]→[직전학기이수학점/학기당수강가능학점])에 의하여 수강신청이 결정됨
   마) 정원에서 전공자정원을 제외한 값만큼 타전공자(전공자 포함)가 수강할 수 있음
4) 학년별정원
   가) 해당 학년만이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을 입력
   나) 이 항목에 입력한 정원 내에서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마일리지 및 이후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수강신청이 결정됨
   다) 입력한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학년별정원의 합계는 과목 정원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참고) 입력한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0으로 셋팅되어 있는 학년별 정원값이 있으면 해당 학년은 수강이 불가함
   라) 고학년의 우선순위로부터 저학년의 수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

이나,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인 경우 고학년의 수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마) 약학과 5,6학년, 건축공학 5학년은 4학년 정원으로 적용됨

5) MaxMileage(전공과목만 해당)

가) 과목별 학생이 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입력

참고) 마일리지의 기본 최대값은 36이나 그 이하로 낮추어 제한조치로 사용함

나) 전공과목 수강신청의 경쟁률이 높은 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에 마일리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됨으로써, 경쟁률이 높은 교양과목의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부족하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

다) 마일리지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므로 마일리지 이후의 우선순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참고) 최소 12이상의 값으로만 설정이 가능함

5. 기타 사항

가. 대기순번제 기간 중에는 취소하는 정원내 수강신청자가 있더라도 과목별로 설정된 전공자정원/학년별정원에 따라 대기순번 1번인 학생이 수강신청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모든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마일리지의 사용 및 과도한 대기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1) 예외과목을 제외하고 신청한 과목의 학점들의 합계가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학기당허용학점이 24학점인 학생은 채플과 RC자기주도활동 과목만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강의시간이 겹치는 경우

3) 학정번호가 동일한 경우(재수강 선택인 경우 제외)

4) 학년별 정원이 0이거나, 전공자정원값과 정원값이 동일한 상황에서 타학과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5) 수강제한학과로 설정된 학과의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6. FAQ

가. <전공별 마일리지 사용한도의 차이> 상경대학 학생입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총량은 72인데 공과대학 학생은 76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목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다름으로 인하여 같은 교양 과목을 신청하는 공과대학 학생들보다 수강신청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 수강신청 허용학점에 기초하여 마일리지가 부여된 것은 수강신청 허용학점이 높은 학생들은 그만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높기 때문이며, 더 많은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일리지의 총량이 다르더라도 한 과목에 분배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최대값은 36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나. <전공과목별 수강신청 경쟁률의 차이>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저희 학과는 전공 과목의 수강신청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보다 마일리지를 높게

투자해야 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 학생에 따라 전공 과목에 마일리지를 높게 투자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과목에 마일리지를 과도하게 소모함으로써 다른 과목에 사용할 마일리지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에서는 해당 과목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최대값을 36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학과 선택사항임). 다만, 이 방침은 마일리지 선택제의 취지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니만큼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여 공정한 마일리지 선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다. <전공과목별 스크린제도> 사회학과 학생입니다. 타 전공 학생들이 마일리지를 높게 분배함으로써 제가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 기존에 학과별 스크린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공자만이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원 내에서는 사회학과 학생들 간에 해당 마일리지에 의한 경쟁으로 결정되어지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학과 선택사항임).

라. <학년별 정원제도 운영> 2학년입니다. 3,4학년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요?

☞ 총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들(고학년)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졸업을 위한 수강신청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3,4학년이 2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2학년 과정에서 이미 수강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학년별 정원을 활용하여 2학년 학생들의 수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학과 선택사항임). 필요한 경우, 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에서 각 학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여지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마. <소수과목신청자의 우선권> 초과학기자나 신입생 중 타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한 두 개의 과목만 수강신청할 것이고, 결국 그 학생들이 넉넉한 마일리지를 투자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나요?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최대 36까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점자 순위기준에 수강신청 과목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두 개의 과목만 신청하는 초과학기자 등이 최대한의 높은 마일리지인 36을 선택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들보다 높은 순위를 갖는 경우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는 0이 아닌 1부터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편법으로 수강신청 과목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바. <제도 외 수강신청 '빌어넣기'> 저는 졸업예정자라서 교수님께 부탁드려서라도 꼭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는 예전부터 허용되지 않았던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개편되는 제도하에서는 본인이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일리지선택제를 도입하고 우선순위의 기준에 졸업신청여부를 포함시켰습니다. 반드시 수

강신청하여야 하는 과목이라면 높은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제도를 벗어나 수강신청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일리지의 총량과 분배 등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이전보다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 <능력별 초과학점 신청가능자의 마일리지> 직전학기에 3.75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마일리지가 부여되나요?

☞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마일리지까지 추가로 부여(이중혜택)되면 원하는 과목을 더욱 많이 선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3학점 만큼 많은 과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과목수 만큼 마일리지를 배분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마일리지를 적게 배분해도 수강신청에 성공할 수 있는 과목은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학생들과 비슷한 수의 과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은 추가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대기순번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 <능력별 초과학점 신청가능자의 직전학기이수학점> 직전학기에 그 이전 학기 성적이 3.75를 넘어서 3학점을 초과신청할 수 있었고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18학점만 신청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18/18인 1.00의 직전학기이수학점 비율을 갖게 되지만 저는 18/21인 0.86을 갖게 되어 피해보는 것인가요?

☞ 직전학기이수학점의 분모에는 초과신청 가능학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18인 1.00의 비율로 동점자 우선순위에 적용됩니다.

자. <대학원과목 신청자의 신청과목수> 대학원과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학원 과목을 제외하면 학부과목은 4과목만 신청할 예정인데, 이러면 우선순위 중 신청과목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인가요?

☞ 대학원 과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총량의 마일리지를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적은 수의 과목에 배분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청과목수의 불이익이 아닌, 일차적인 결정 요소인 마일리지를 보다 많이 과목별로 배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차. <과목별 최대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제한> 한 과목에 36의 마일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두 과목만 신청할 예정인데, 다른 과목도 36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 두 과목만을 신청하는 경우, 제도 시행의 초기에는 72의 총 마일리지를 갖는 학생(학기당 18학점 신청자)은 36을 두 과목에 배분하고, 76의 총 마일리지를 갖는 학생(학기당 19학점 신청자)은 36을 두 과목에 배분한 후에 4의 마일리지를 임의의 다른 과목에 배분하여 신청과목수를 증가시키는 비합리적인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곧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한 과목에만 36의 마일리지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 "36,35,1 vs 36,35,5" 또는 "36,32,1,1,1,1 vs 36,35,2,1,1,1"과 같이 형평성 내에서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36의 마일리지를 배분한 학생들의 인원이 1/2로 감소하여 마일리지 동점자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 <교환학생의 직전학기이수학점 및 총이수학점>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아직 학점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일리지가 동점인 경우에 직전학기이수학점이나 총이수학점의 과목별 순위에서 손해보는게 아닐까요?

☞ 교환학생의 직전학기이수학점은 휴학생과 동일하게 파견가기 이전 학기의 취득학점을 직전학기이수학점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총이수학점에서는 교환대학으로부터의 성적표 수령이 어려워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견기간의 학기수 만큼 [학생의 전공에 따른 학년별 기본 수료 학점]을 가산합니다(단, 파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학생만 해당됨).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학점만큼 총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빠른 기한 내에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 <모든 조건이 동일한 동점자의 처리> 마일리지 및 기타 우선순위까지 모두 동점인데 다른 학생은 성공적으로 신청되었고, 저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순위 판정에 있어서 마일리지,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전공의 일치 여부, 신청과목수, 졸업신청여부, 초수강여부, 총이수학점/졸업이수학점, 직전학기이수학점/학기당수강가능학점을 적용하고 36을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을 한 개로 제한함으로써 동점자 발생을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0.0003%)의 과목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종 순위 판정 기준으로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강의실의 여건상 모든 동점자를 성공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적용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본 제도 및 관련 자료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며, 타기관이 임의로 도용하여 사용시에는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NSEI UNIVERSITY